

한미 FTA 4차 협상 결과 및 문제점

제주도에서 개최된 4차 협상이 27일 SPS(위생 및 검역조치) 분과를 끝으로 협상이 종료됐다. 금년 초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게 될 5차 협상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양측은 농산물 개방폭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측은 쟁점이 많은 농산물 등은 5차 협상 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쟁점 현안들을 그대로 남겨 남겨두어 금년 내 다섯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체결한다는 애초 목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커틀러 대표 또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두었지만, 내년 초 타결도 염두해 두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대외협력실 김광천 과장 |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측 농산물 개방안은 점차 개방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4차 협상의 핵심은 상품/섬유/농산물/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관세인하의 대상과 폭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번 4차 협상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에 미국에 기타품목을 284개로 제안 한 바 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58개 품목을 줄인 수정양허안으로 미국측을 설득한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측이 요구한 SSG(특별긴급관세)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품목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채소류(토마토, 상추, 수박, 알로에 제품 등), 과수류(자몽, 레몬, 버찌, 무화과, 아보카도 등), 곡물

류(고구마-건조, 메주, 변성전분, 밀 등), 축산물(마요네즈, 말, 대두유박, 원피 등), 가공식품(옥수수유-조유), 대두유-정제유, 간장, 혼합조리료 등) 등 58개 품목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한 것은 올해 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라는 대체적인 평가다.

농업 분과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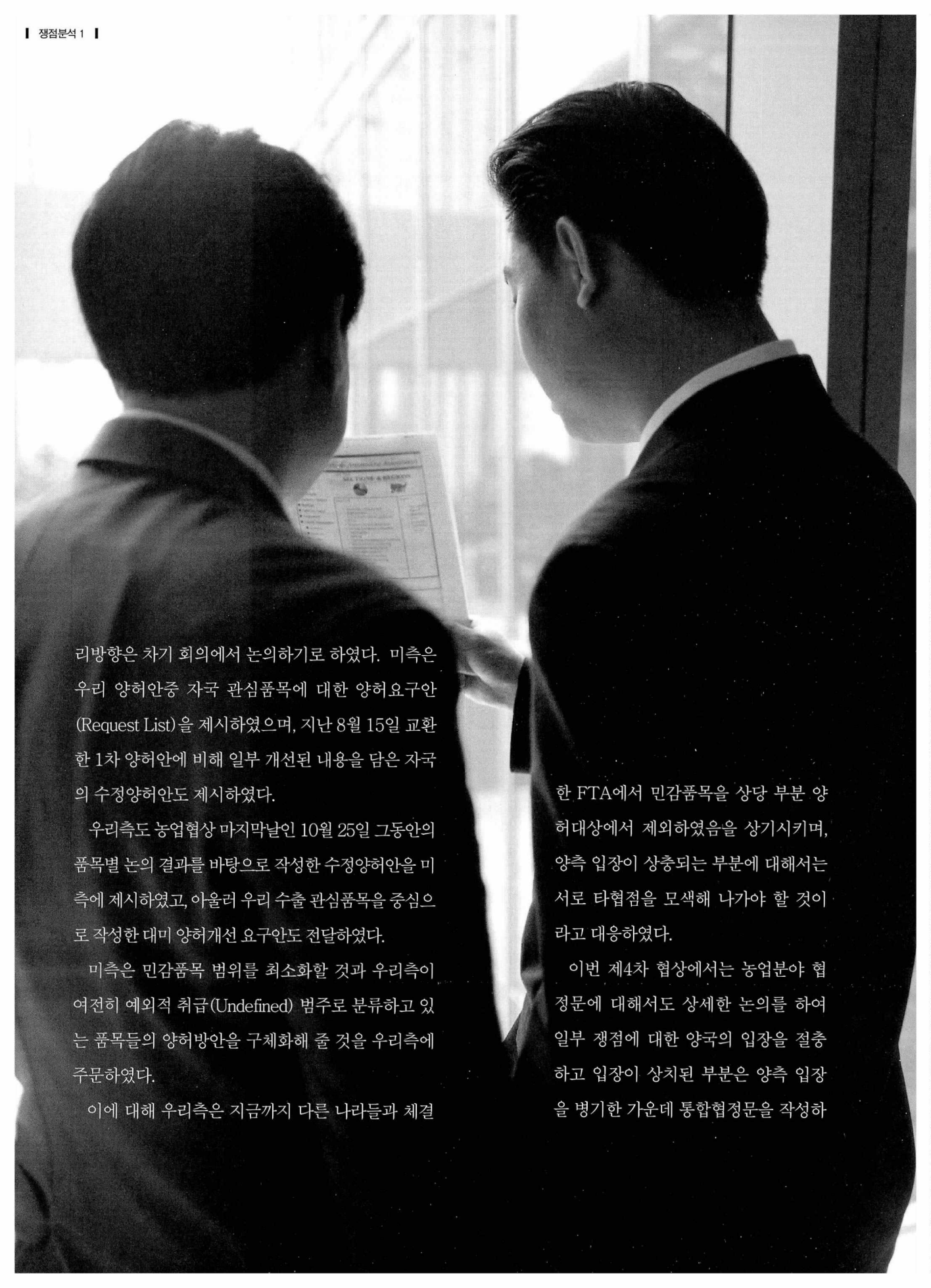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양허안 작성을 위한 품목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축산물, 원예작물(과일, 채소, 견과류)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중 민감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상당 수준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민감성이 큰 품목의 구체적 처

<1차 양허안과 수정양허안 비교>

양허유형	1차 양허안(8.15) 품목수(%)	수정 양허안 품목수(%)	증감 품목수
즉시 철폐	532	573	+41
3년 철폐	35	27	-9
5년 철폐	147	262	+115
10년 철폐	3321	353	+21
15년 철폐	200	90	-110
미정(undefined)	284	226	-58
총계	1,531	1,531	

※ 자료 : 농림부, 10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보고자료



리방향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측은 우리 양허안중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 교환한 1차 양허안에 비해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은 자국의 수정양허안도 제시하였다.

우리측도 농업협상 마지막날인 10월 25일 그동안의 품목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정양허안을 미측에 제시하였고, 아울러 우리 수출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작성한 대미 양허개선 요구안도 전달하였다.

미측은 민감품목 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우리측이 여전히 예외적 취급(Undefined)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들의 양허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우리측에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체결

한 FTA에서 민감품목을 상당 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양측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이 상치된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한 가운데 통합협정문을 작성하

였다. 양측은 우리측이 지난 10.3일 제시한 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였는데 농산물 관세양허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리측 주장을 미측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과 함께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의 의견대립이 컸던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는 수입쿼타 관리의 일반 원칙 및 투명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기재하고 양측 입장이 상치한 내용은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였다.

SPS 분과 주요 결과

위생 및 검역 분야는 투명성 규정 및 협의채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협상을 마쳤으며, 차기 협상에서는 상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위생 및 검역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분야별 기술적 협의는 FTA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계획(정부 측 의견)

정부는 제5차 협상에 대비하여 농산물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예외적 취급(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민감도에 따라 양허대상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 설정,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허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및 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쿼타(TRQ) 관리방안은 수입쿼타 대상품목 결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분야는 협의채널 등 협정문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측 논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차 협상장소 선정의 미국의도는?

차기 회의는 12월 4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빅스카이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 5차 협상이 열리는 몬태나주 빅스카이는 미국의 '비프 벨트(beef belt)'에 속하는 쇠고기 산지로 축산업이 주축이다. 이번 협상 유치에 적극나섰다는 이 지역 출신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별명이 '미스터 비프(Mr. Beef)'일 만큼 이 지역의 '쇠고기 산업'은 기간산업이다. 개최 예정지인 몬태나 빅스카이 지역이 씨애플보다 더 외지인 도시임을 고려할 때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투쟁단의 접근 및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에 다각적인 투쟁방식과 인원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